

월간

# 공군



제547호

# 01

#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5 **안내**  
부분개편

17 **공군숏터뷰**  
정훈 분야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을 만나다!

06 **기획**  
조종사 비긴즈 II

18 **Aero Detail**  
주요국의 공격기



12 **우리 부대는**  
제11전투비행단 제102비행대대

24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 I. 워싱턴 항공우주박물관

14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 그 사이 어딘가



표 지 (앞) KF-21 보라매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공군(일병 문준혁)  
표 지 (뒤) 새해맞이 계획을 실천하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1월 1일(통권 제547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대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312039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28 **내 옆의 공군인**  
하늘과 바다,  
낭만을 담아내는 예술가 이진용 소령



44 **한 달, 한 권**  
이토록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46 **영화로운 나날**  
「나폴레옹」 영웅과 인간 사이

48 **책 읽는 공군**  
감사(感謝)를 감사(監査)하다  
(제20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상사 김홍필)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49 **공군인의 하루**  
다하자 버킷리스트  
(작전사령부군무지원단 복지대대 대위 심예현)

40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소금: 백색의 권력자

50 **토닥토닥**  
우린 아마도 청춘 ♪

42 **동서양 그랜드투어**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를 담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공군**

2024 새해 이벤트

참여기간 | ~'24. 1. 21.(일)

# 공군 응원 문구와 신년 계획 3가지 작성하기!



공군 응원 문구



신년 계획



1.

2.

3.

추첨을 통해 **하늘이프렌즈 키캡**을 보내 드립니다!



# 기계식 키보드 대부분 사용 가능

# 키보드 아님 주의!

**참여방법** | 작성 후 페이지를 촬영하거나 캡처 후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제출

**결과발표** | 공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출** | afzine@korea.kr

※ 개인정보는 택배발송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벤트 종료 시 일괄 삭제 예정입니다.

# 2024 new cover design

2023년의 월간 『공군』은 엽서 같은 하늘이프렌즈 삽화가 그려진 앞표지와 공군이 추구하는 가치로 채운 뒤표지로 채워졌습니다. 2024년에는 점·선·면과 동그라미·세모·네모 등의 도형을 콘셉트로 채운 앞표지와 최수정 작가의 하늘이프렌즈 삽화를 뒤표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코너를 소개합니다!

###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식탁 위의 식재료와 요리 중 군대나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외식관광진흥원과 세상의 모든 레시피를 운영하는 필진들과 함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식재료 이면의 군대/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동서양 그랜드투어

‘그랜드투어’는 17C 중반부터 19C 초반까지 유럽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고전 음악과 미술을 보고 들으며 귀족으로서의 학식·성품을 연마하던 ‘그랜드투어’처럼 동서양의 명화·명곡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 공군인의 하루

공군 장병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던 <공군인의 편지>가 장병·군무원의 하루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기 <공군인의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공군인의 일상을 응원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 공테리어

코너명은 공군 +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홈스타일리스트분들이 알려주는 공간디자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격월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공군단신이나 공군인터뷰처럼 한 쪽의 알찬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 그동안 고마웠어요!

### 영화로운 나날

김인혁 에디터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한다는 건 설레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일입니다. 저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영화로운 순간들로 기억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선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송희운 마케터

영화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월간 『공군』을 통해 더 좋은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 영화평론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4년도 독자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슬기로운 장병생활

장박원 前매일경제논설위원

인생 1막은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인생 2막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즐겨라. 인생 3막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 시와 비행하다

강혜빈 작가

여러분의 일상에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언 마음을 환하게 녹이는 시가 스며든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 책들도 펴낼 예정이니, 우리 공군의 하늘처럼 드넓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승리하세요. 필승!

### 한 달, 한 권

편성준 작가

월간 『공군』 독자들께 책을 소개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책은 독자의 손에 들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드라마·영화의 원작이 아닌 책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났으면 합니다. 항상 책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진아 작가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매개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는 새해가 되시길 빌게요.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신 모든 독자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조종사 하늘이를 만나다

# 조종사



# 비긴즈 II

지난 호에 이어 연재되는 '조종사 비긴즈 II'는 공군모집 홍보 리플릿을 활용한 '공군 조종장교의 장점'을 말씀드린 뒤 공군 전투 조종사 2명과의 인터뷰와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군 조종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11쪽 포스터의 QR 코드를 활용해 '공군모집 홈페이지(<http://go.airforce.mil.kr:8081>)'에 접속 또는 함께 적힌 SNS 채널이나 유선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공군 조종장교의 장점〉

- 공군 조종사로서 신분보장 및 안정된 직장
  - 소위로 임관 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연금 지급
- 선발 시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학 등록금 전액 및 조종실습비 지원)
- 조종장교 복무 시 혜택
  - 의무복무 만료 후 전역 희망 시 항공사 취업 추천 가능  
(항공사 취업을 위한 '사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 여건 보장)
  - 대부분 민간 공항에 인접한 대도시 근무
  - 항공수당 별도 지급
  - 관사 및 간부숙소 우선 제공
  - 복무기간 각종 교육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 군 관사, 간부숙소 제공으로 전·월세 자금 절감
  - 전국 관광지에 있는 군 휴양 시설 이용 가능
  -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학금(꿈도전 지원금) 지급
  - 군 의료시설 본인과 군 가족 이용 가능



공군본부 전략기획과 윤현필 소령(학사 128기)(왼쪽)과 제39비행단 제159비행대대 장세용 대위(학사 140기)(오른쪽)

### 조종사라는 꿈의 달성

**윤 소령** 중학생 때 처음 막연하게 떠올린 장래희망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일반대학에 진학한 이후 조종사는 아니지만 공군 장교로 복무하셨던 아버지를 통해 조종장학생(現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이란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 조종사가 됐습니다.

**장 대위** 경기도 성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공군과 항공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조종사라는 직업에 대해 동경을 품었습니다. 일반대학 회계학과로 진학해 공군 병으로 근무했는데, 이때 조종장학생이란 제도를 우연히 알게 됐고, 병사 전역 후 조종장학생 시험에 응시해 전투기 조종사란 꿈을 이뤘습니다.

### 조종사가 하는 일

**윤 소령, 장 대위** 비행대대에서 비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관 조종사로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비행 전에는 비행 일정표가 나오면 전날부터 비행 준비를 하고, 브리핑 자료 준비, 이륙 2시간 전 브리핑, 착륙 후 항공기 점검·디브리핑까지 하면 한 소티<sup>1)</sup>가 종료됩니다. 비행이 없는 날에는 비상대기하거나, 각각의 보직에 주어진 지상 업무들도 틈틈이 수행하고, 교육을 듣기도 합니다.

### 조종사에 관한 흔한 오해

**윤 소령, 장 대위** 많은 사람이 공군 조종사라고 하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월간 『공군』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 중에서도 ‘조종사’란 꿈에서 멀어졌다고 포기하려 하는 분이 계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언젠가는 조종사란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공군 조종사들만의 문화

**윤 소령, 장 대위** ‘Confess(〔죄·잘못을〕 자백하다) 문화’가 있습니다. 비행 중 자신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라도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임무들을 하다 보니 선후배 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1) 소티(sortie): 단독 출격 횟수로 ‘나가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sortir에서 유래했다. 전투기 1대가 1회 출격하는 것을 1 소티로 취급한다.



**공군 조종사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나 자질**

**윤 소령**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대대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하신 ‘조종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겸손함, 정직함, 탁월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책임지는 일하기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는 안 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탁월한 비행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장 대위** 겸손과 배려입니다. 어떤 직업·직종이든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하는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종사는 유사시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며 출격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는 겸손과 배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팀워크를 만들어 조종사로서 원활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면서 힘든 점**

**윤 소령** 비행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입니다. 공중에서 비콘음<sup>2)</sup>을 청취하거나 누군가 비상탈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무사 귀환하길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종사들은 비상처치 훈련과 지상학술 연구를 통해 항상 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  
**장 대위** 전투 조종사들은 방공비상대기 등 여러 비상대기 근무가 주말이나 연휴 구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잘 쓰지 못할 때 미안하고, 언제 출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심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내가 타는 기종의 소개**

**윤 소령, 장 대위** KF-16은 뛰어난 기동성과 다양한 무장장착으로 공대공/공대지 복합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대한민국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또한, 웬만한 악기상에도 임무가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더 강력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KF-16이 편대비행하는 모습

**나만의 비행 전  
루틴이나 징크스**

**윤 소령** 징크스는 딱히 없고, 항공기 외부점검 후 탑승 전에 항공기 앞쪽에 서서 속으로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위** 비행훈련 시작 때부터 당시 여자친구(現 아내)에게 비행 전후 “잘 다녀오겠다.”, “잘 다녀왔다.”라는 전화하던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비행 전후로 언제나 전화를 꼭 합니다.

**새해 인사**

**윤 소령, 장 대위**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가장 높은 곳에서 불철주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영공방위에 정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승! 

2) 비콘음(beacon音): 비상주파수 신호음. 조종사가 이젝션(ejection·비상탈출) 레버를 당기면 자동으로 주변으로 발산되며, 주변 항공기에서 이 신호를 수신한다.

#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


R e p u b l i c o f K o r e a A i r F o r c e M a g a z i n e

**01**



공군사관학교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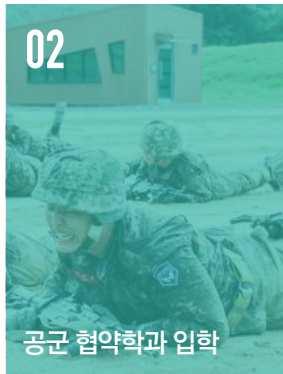
**01**



공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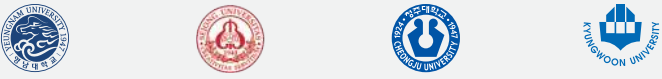
1차 시험(국어·영어·수학 필기시험) 및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합격한 수험생 중 점수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합격자들은 군사훈련, 생활교육, 정신교육으로 구성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 과정을 거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02**



공군 협약학과 입학

**02**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예정)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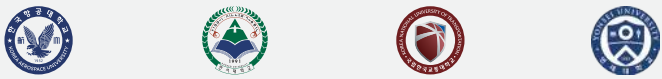
공군과 협약된 대학교의 학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4년간의 대학교 교과과정 수료 후 졸업 시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합니다. 수시/정시전형에 지원해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1단계 전형 및 공군이 주관하는 2단계 전형(신체검사, 면접평가, 체력검정, 조종적성검사, 신원조사)에서 선발되면 이를 종합해 각 대학교에서 최종 선발결과를 발표합니다.

**03**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전형 선발

**03**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전공 무관)

공군에서 주관하는 1차 전형(필기평가) 및 2차 전형(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조종적성검사, 신원조사)을 통해 선발됩니다.

**학군사관**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조종분야)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해 1~2학년 중 선발된 사람은 3학년이 되면 학군단에 입단해 2년간의 학군단 교육 기간을 거쳐 졸업 시 공군 학군장교로 임관합니다.

**학사사관** 그 외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위에 적힌 공군 학군단(조종분야)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 3~4학년(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에 선발된 사람은 졸업 후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합니다. 일반학군단의 경우 학군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 내용은 인력 획득, 운영 계획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의 공군모집 홈페이지(QR코드)에 접속해 확인 바라며, 포스터의 SNS 채널과 유선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공군모집 QR코드



# 너는 어떤 하늘이야?

## 2024 대한민국 공군 간부모집

지원문의

공군모집

@rokaf\_recruiting

1433-09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청룡의 해’를 맞아 잠시 돌아온 코너

# 우리 부대는

응비! 청룡! First In Last Out!



# 제11전투비행단 제102비행대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최선봉에서 조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유일 F-15K 운용 비행단인 제102비행대대를 소개합니다.

## 부대 마크의 의미

- ▶ 방패: 조국 영공방위의 의지를 상징함
- ▶ 용: 용맹성의 표본으로 여의주 대신 미사일을 장착함
- ▶ 바탕색: 따뜻한 민족애를 표현함
- ▶ 구름, 번개: 전천후\*를 나타냄

## 부대 연혁

- ▶ 1951. 08. 01. 비행 12대대 창설 (F-51, 강릉기지)
- ▶ 1953. 02. 15. 제10전투비행단 예하, 102대대로 재편
- ▶ 1954. 11. 26. 수원기지(K-13)로 이동
- ▶ 1956. 08. 30. F-86 기종 전환
- ▶ 1959. 03. 해외 사격대회(Flying Brother, Philippines 참가)
- ▶ 1963. 02. 15. 대구기지(K-2)로 이동
- ▶ 1964. 03. 11. 수원기지(K-13)로 이동
- ▶ 1965. 07. 24. F-86F 퇴역, F-5A/B로 기종 전환
- ▶ 1977. 08. 30. 수원에서 강릉기지로 이동
- ▶ 1987. 04. 28. 강릉에서 광주기지로 이동
- ▶ 2007. 04. 01. F-15K 전환 및 재창설
- ▶ 2013. 08. 02. RED FLAG (ETIELSON AFB, USAF) 최초 FERRY 참가(공중 급유)

\* 전천후(全天候): 어떠한 상황이나 기상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음.



제11전투비행단 제102비행대대 단체 사진



서울 공군호텔에서 12월 19일(화)에 열린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사진

##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종합 최우수 대대 선정

제11전투비행단 제102비행대대는 2023년 10월 11일(수)부터 11월 9일(목)까지 열린 '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F-15K 기종 종합 최우수대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 청룡대대 용띠 장병의 새해 인사

“필승!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F-15K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청룡대대 최지용 소령입니다. 갑진년(甲辰年)의 '진(辰)'은 용을 뜻함과 동시에 예로부터 국가의 수호신으로 여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으로써, 2024년에도 변함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청룡대대의 용띠 장병, 소령 최지용(1988년생)

# 자유와 평화 그 사이 어딘가

공군 그래픽디자인병으로 복무한 지 4개월, 사회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내게 작가를 인터뷰할 기회가 찾아왔다. 전투기를 좋아하고, 공군 국민조종사 7기의 이력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기에 사전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하늘을 담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의 사회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 목록들이 흥미를 돋웠고, 인터뷰 준비 단계부터 가슴을 뛰게 했다.



정욱현 일병이 〈전투기로 말한다!〉 한미주 작가 개인전에 방문해 인터뷰하고 있다.

한미주 작가는 숙명여대 산업미술과를 졸업하고 PD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작가와 예술 강사의 길을 걷고 있다. 비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슴이 뛰고, 그중에서도 전투기에 대한 애정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일까? 한미주 작가의 작품에는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들이 각자 다른 의미가 있는 상태로 표현돼 있다. 그리고 혼합 매체(Mixed Media)<sup>1)</sup>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작품의 메시지에 합당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찾아 작업하는 작가의 특성이기도 하다.

작가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항거해 왔다고 한다. 본인의 소신

을 억누르지 않고 당당히 맞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맞서 싸운 결과는 슬프고 쓰디쓴 기억으로 남았지만, 작가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찾아낸다.

이번 〈전투기로 말한다!〉 전시 또한 앞서 말한 새로운 도약 중 하나로, 작가 본인에게는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모아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다시 내면의 불을 밝히고 시동을 거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작가에게 비행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작가를 전투기와 비행의 매력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 한미주 작가에게 비행이란 원래 자유로움이라는 의미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전투기는 상처와 분노의 표출수단이기도 하다.

1) 혼합매체(mixed media):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나 미디어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기법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과 사연은 너무 많지만, 작품의 의미와 표현 방식이 인상 깊었던 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표현한 「임계점」이란 작품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인생의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인생을 살아온 기간에 따라서도 그 한계점은 각자 다를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제각기 다를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의 한계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 한계를 돌파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와 연대로 힘을 모은다면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전투기가 초음속을 돌파했을 때의 소닉붐<sup>2)</sup> 현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작품과 의미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전투기의 소닉붐 현상을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이 ‘돌파(突破)’라는 단어와 얼마나 잘 연결될 수 있는지 말이다.



「임계점(소닉붐)」  
mixed media on wood tray(나전+옷칠), 38x25cm, 2023

작품 표현 방식도 독특하다. 소닉붐이 일어났을 때의 연기가 형성되는 모습이 자개와 나무판의 나뭇결을 따라 표현됐고, 자개로 만들어진 전투기는 어떠한 한계도 돌파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

66 나는 실험적인 것이 좋고,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보고 새로운 것도  
도전해 보는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작품에  
더욱 녹여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99



정육현 일병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한미주 작가

2) 소닉붐(sonic boom): 음속폭음(音速爆音),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만든 충격파로 발생하는 폭발음



「수직상승(비상 飛上)」  
mixed media on wood board(나전+웃칠), 40x17.5cm, 2019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투기로 ‘자유’와 ‘평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의도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바꾸고자 한 것이 아닌, 사회가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작가 본인이 바라보는 작품의 주제 또한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작가는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인도 하나의 등불이 되어 빼아픈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작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는 그런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한다.

평화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본인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깊은 뜻에 작지만 함께 하면 좋겠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힘이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미주 작가가 걸어가고 있는 길처럼 본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걸어온 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큐레이터는 예술로 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작가의 작품으로 하나의 큰 예술품을 만들어 대중에게 선보이는 만큼 전시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힘을 알고 있다. 이전에도 환경, 사회적 약자의 소통문제와 같은 전시를 기획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고, 그러한 날이 오길 고대한다. [☞](#)



**글쓴이 정보체계관리단 체계지원대 일병 정욱헌**

前 Boutique Monaco Museum Curator, 前 PICKSGOOD Gallery Exhibition Manager.  
입대 후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그래픽디자인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표 기획 전시는 렘브란트 - 내면을 에칭하다展, WHITE FUTURE - 윤형재展, Wave In Blue Island展,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요?'展 등이 있다.





# 정훈 분야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을 만나다!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겸 화가 이종승

Q

작업/연구에 관한 소개

A

주로 천연안료로 흙 벽화 기법으로 동시대의 자연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회화재료와 기법, 오래된 벽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를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과 현대화된 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드론의 시점에서 그린 현장 스케치나 현장 사생을 기반으로 한 심상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Q

공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

A

### ①공군예술품의 관리와 활용 방안

공군이 소장한 미술품 정보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 후 작품의 분류(요수리/폐기/사용 가능 작품 등), 전시 가능 공간 조사 후 적절한 작품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시대에 맞는 작품의 구매와 각종 미술사생대회 개최를 통한 수상작을 활용한 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②장병 문화예술 관련 전시회 방문에 관한 조언

군부대 특성상 전시회 방문이 어려우므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의 형식을 빌려 순회 전시를 기획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로비나 복도, 군 장병 생활공간 등 부대 내 전시공간을 마련해 자연스러운 미술품 감상을 유도합니다.

Q

공군인에게 전하는 새해맞이 한마디

A

미술품의 감상은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의 윤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작품감상을 통해 상상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같이 늘 곁에서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대한 다짐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술작품에 관심을 두고 말을 걸어보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지켜주는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행복하고 신명 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주요국의 공격기

### F-117 스텔스 공격기

1991년, 걸프전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F-117 스텔스기는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미국이 스텔스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큰 피해를 보면서부터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에서 소련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이스라엘 공군이 겪었던 피해 역시 스텔스기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하에 美 국방부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을 통해 록히드 사와 노스롭사에 스텔스기 개발을 지시했다.

록히드가 제작한 스텔스 시제기 ‘해브 블루’는 1977년 12월 1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지만 1978년 5월 4일에 사고로 손실됐다. F-117은 이 시제기를 바탕으로 실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무장과 센서를 탑재하고, 기체를 전반적으로 확대한 기종이다. 극비리에 개발된 F-117은 외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존재를 계속 숨길 수 있었으나, 美 국방부가 1988년에 F-117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F-117A 나이트호크 스텔스 공격기



정렬된 기체 경사각과 공기 흡입구 전파흡수망 스텔스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F-117 정면

F-117A는 1991년 걸프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1년 앞서 파나마에 투입되었던 첫 실전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F-117A의 첫 실전 투입은 총 6대가 투입됐고, 그중 폭탄을 실제로 투하한 기체는 2대였다. 토노파 기지를 이륙한 6대가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향한 곳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와 중부에 있는 리오 하트였다. F-117A 제1편대의 2대는 리오 하트에 있는 파나마군 보병부대 막사를 공격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리오 하트에 접근한 F-117은 각각 1발씩 2,000파운드 폭탄을 막사와 가까운 거리에 명중시켰다. F-117의 폭격은 약천 후와 통신 착오로 인해 완벽하진 않았으나 스텔스기에 의한 기습의 효과를 나타낸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듬해인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을 필두로 하는 다국적군이 대 이라크전의 준비를 시작했다. 다국적군 항공기에 F-117이 포함된 것을 이라크도 알고 있었으므로 미국은 파나마 경우처럼 완전한 기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방공시스템은 전혀 F-117을 탐지할 수 없었고, 바그다드에 있는 대통령 관저와 바트당 본부, 이라크군 사령부, 이라크 및 쿠웨이트의 지휘 통신 시설은 F-117에 의해 기습 공격을 당했다.

1991년 1월 16일 23시, 카미스 무사이드 기지를 출격한 F-117 36대는 저고도로 침입해 공격하고, 고고도로 귀환하는 비행을 했다. F-117이 바그다드 상공에 도달했을 때 등화관제는 시행되지 않았고, F-117은 기수에 장비된 센서로 목표 건물을 조준해 레이저 유도폭탄을 목표에 명중할 수 있었다. 최초로 공격당한 시설은 미국이 과거 AT&T 사옥으로 사용했고, 이라크군이 접수한 후에는 통신 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이 AT&T 빌딩에 폭탄이 명

중되는 영상은 TV를 통해 널리 방송됐고, 스텔스와 스마트무기라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세계인의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중추적인 지휘 시설이 무력화돼 이라크군은 효과적인 반격도 못 해본 채 결국 정전에 응했다. 만약 F-117 스텔스기에 의한 개전 첫날의 공습이 없었다면 다국적군은 절대적인 항공우세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가 증가했을 것이 자명하다. 불시에 완전하게 기습한 것도 아니고, 적이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F-117과 스텔스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GBU-27 페이브웨이III 레이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F-117A

이후 F-117은 이라크전쟁, 보스니아전쟁 등 미국이 참전한 분쟁에서 중요한 침투 공격기로 활약했다. 1999년 코소보 공습에서 F-117은 SA-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기도 했지만 계속 일선에 남아있다가 2008년에 전량 도태됐다. 비록 F-117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전력으로 상당 기간 남아있게 될 것이고, 특이한 외형과 화려한 전과 덕분에 세계인의 머릿속에 대표적인 스텔스기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 탱크킬러, A-10 공격기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

A-10 공격기의 개발은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美 공군은 베트남전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F-4, F-105 등의 전투기를 투입했으나 이들 기종은 근접항공지원에 부적합했다. F-4, F-105 등은 고속의 대형기종으로 무장탑재능력은 우수하나 근접항공지원 임무는 고속 비행성능보다 전장 상공에서의 체공 능력이나 저고도 기동성, 다양한 무장탑재능력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美 공군은 점증하는 美 육군의 근접항공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항공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1966년 중반 근접항공지원 전용 공격기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신형 공격기의 요구조건으로 전투 효율성, 생존성, 단순성을 갖출 것이 제시됐다. 특히 야전 비행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비행 및 정비유지에 신뢰성이 높아야 했고, 대

량무장으로 장시간 체공이 가능하며, 고도의 기동성을 갖춤으로써 기존의 B-57 폭격기, A-37 및 A-1 공격기 등을 대체하고자 했다.

신형 공격기 계획의 최종 기종으로 결정된 A-10 항공기는 근접항공지원이라는 단일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돼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필요한 항공기 요구도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A-10 개발에 적용된 주요 설계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10은 소리 속도보다 느린 고아음속 영역에서 성능이 우수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 비록 최대속도는 떨어지지만,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어느 전폭기보다 우수한 체공 능력과 전투 지속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저공비행으로 인해 피탄될 경우를 대비해 조종실 주위와 밑부분을 티타늄 방탄판으로 둘러싸 23mm 기관포 직격탄에 맞아도 조종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주요부위가 장갑화하고 있다. 기체 중량의 17%를 장갑에 할당된 A-10의 생존성 중심 설계는 이후 걸프전에서 피탄됐던 A-10이 모두 기지에 안전하게 귀환함으로써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셋째, A-10은 항공기 탑재 기관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의 GAU-8 30mm 기관포를 기축 선상에 장착하고 있으며, 기관포를 탑재를 위해 바퀴를 기수 우현 쪽으로 가까이 붙인 것 역시 어느 항공기에서도 볼 수 없는 A-10만의 독특한 설계방식이었다.



30mm 기관포 탑재를 위해 노즈 기어를 중심에서 우측에 치우쳐 설계한 A-10

그밖에도 A-10은 넓고 두터운 주익을 갖춰 저고도 야음 속 영역에서 우수한 선회성능을 보이고, 야전 비행장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우수한 단거리 이착륙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날개 밑에 11곳의 무장 장착점을 갖춰 7.2t의 무장을 다양한 조합으로 탑재할 수 있고, 1회 출격으로 최소 16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대 기갑 능력도 지니고 있다.

큰 탑재량과 오랜 체공 시간, 저공에서의 운동성과 양호한 이착륙성능, 우수한 생존성과 야전 운용을 고려한 구조적 단순성 등은 A-10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속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근접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을 위해 설계를 특화한 A-10은 현대 전장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걸프전에서 다시 진가를 발휘했다. 애매한 성능을 보였던 노스롭의 A-9과의 경쟁에서도 A-10은 과감히 특화된 설계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후 1990년대에도 대체될 수 없는 특화된 성능으로 2020년대에도 운용을 보장받았다. A-10은 F-35A의 배치로 서서히 퇴역이 진행될 것이지만 F-35A 배치가 A-10의 공백을 채운다는 개념은 아니며, 근접지원기로의 '명기 A-10'의 빈자리는 그대로 계속 남을 것이다.

### 러시아 공격기, Su-25

미국의 A-10에 해당하는 러시아 항공기는 Su-25 공격기다. Su-25는 구소련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설계됐으며, 첫 비행은 1972년에 성공한 A-10보다 3년 늦은 1975년이다.

A-10과 유사한 성능의 Su-25는 러시아 공군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많은 친러국가에 도입돼 공격기로 운용되고 있다. Su-25는 여러 전쟁에서도 사용됐으며, 특히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활약이 유명하다. 당시

미국이 제공한 스팅거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Su-25는 피탄되기도 했으나 무사히 기지로 귀환에 성공해 Su-25의 우수한 생존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 걸프전 등에서 Su-25가 사용됐고, 러시아군이 개입한 시리아 전장에서도 다량 운용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u-25는 러시아 공군의 주요 근접항공 지원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 공군 Su-25 공격기



성능이 향상된 신형 Su-25SM 공격기

## 가변익 공격기, F-111

F-111은 세계 최초로 가변익을 실용화한 기종이다. F-111은 처음에 전투기로 개발됐지만, 훗날 공격기로 임무가 전환됐기 때문에 전투기보다는 공격기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F-111을 공격기로 운용하면서 美 공군과 美 해군은 각각 F-14, F-15라는 당대 최고의 전투기를 1970년대부터 배치할 수 있었다. 비록 전투기로는 실패했지만, F-111은 초저공 장거리 침투가 가능한 기체로 장기간 운용되면서 존재 가치를 입증했고, 베트남전, 리비아 공습, 걸프전 등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F-111에서 실용화된 신기술은 이후 군용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F-111은 군용기 역사상 획기적인 기체 중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F-111의 개발은 195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美 공군은 F-105 전폭기의 후계기를 모색했다. 신형 전폭기에 요구된 성능은 마하 2.5(약 3,087.5km/h)의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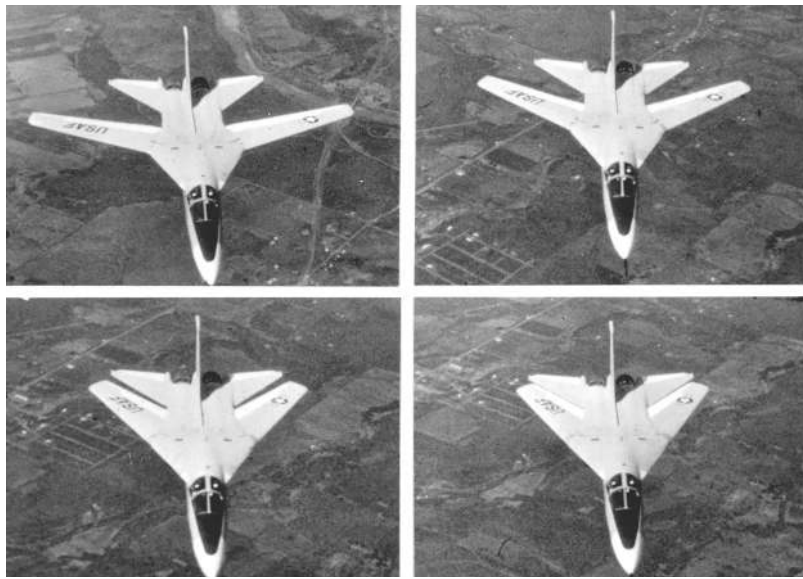
속도, 단거리 이착륙성능, 핵폭탄을 포함한 대량의 무장을 탑재하고 저공을 장거리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훗날 전술 전투기 개발계획(TFX)으로 본격화된 이 신형기는 일반적인 날개로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당시 연구되던 가변익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196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는 국방부장관에 로버트 맥나마라를 임명했고, 맥나마라는 이 신형 전투기를 해군도 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공군과 해군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맥나마라는 85%의 공통점이 있어 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출되면 3,000대 이상 양산이 가능하므로 단가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맥나마라는 美 공군과 해군의 공용 전투기 개발계획을 강행하기로 했고, 1962년 11월 제너럴 다이내믹스/그루먼 사의 설계안을 최종 선택했다. 공용 전투기에서 美 공군형은 F-111A, 美 해군형은 F-111B로 명명됐다. F-111B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중량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해 결국 美 해군형은 취소됐다.



Mk82 폭탄을 투하하는 F-111 공격기



속도에 따라 후퇴각을 변경하는 가변익 항공기 F-111


F-111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변익이다. F-111은 속도에 따라 주익 후퇴각이 16도에서 최대 72.5도까지 변경돼 비행효율을 높인다. F-111은 주익에 보조익을 설치하지 않아 횡조종은 수평미익이 전담한다. 이러한 F-111의 조종방식과 공기 흡입구, 터보팬 엔진, 지형추적 레이더 등은 후속 전투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완성된 F-111은 최대속도 마하 2.5(약 3,087.5km/h)에, 저고도로 침투 시 마하 1.2(약 1,482km/h)로 비행이 가능했다. 13t 이상의 무장탑재량과 5,000km가 넘는 항속거리는 폭격기로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F-111은 1967년부터 노후된 B-52 초기형과 B-58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폭격기형인 FB-111A로 배치가 시작됐다. 그 외에도 F-111은 전자전기로 개조되어 EF-

111 이라는 이름으로 1981년부터 美 공군에서 운영됐다.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출격을 단행했던 F-111은 1986년 4월, 리비아 폭격 작전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영국 기지에서 발진한 F-111F형 24대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야간에 장거리를 비행해 리비아 목표물에 대한 정밀폭격 임무를 완수했다. 걸프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F-111E형이 전개해 깊숙이 위치한 이라크 목표들을 타격하기도 했다.

F-111은 개발국인 미국에서 모두 퇴역했고, 미국 외에 호주 공군이 F-111C,

F-111G형과 정찰형 RF-111C를 2010년까지 운용하다 퇴역시켰다. 



호주 공군이 장기간 운용했던 F-111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 미국 I. 워싱턴 항공우주박물관

초강대국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대영제국과 8년간의 전쟁을 거쳐 1783년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에서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군사/경제/문화면에서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 오늘날의 미국은

인구 3억 4천만 명, 국토넓이 983만km<sup>2</sup> (한국의 100 배), 연 개인국민소득 75,200달러 수준의 다민족 국가다. 군사력은 현역 1,359,600명(육군 464,900, 해군 346,300, 공군 325,100, 우주군 8,400, 해병대 174,550, 해안경비대 40,350)과 예비군 817,450명을 보유하고 있다.



링컨기념관에서 본 워싱턴기념비 전경



## 워싱턴 역사공원과 해병의장대 행진

미국 수도 워싱턴(Washington DC)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링컨기념관에서 워싱턴기념탑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넓은 공원은 미국의 역사기념물이 총망라돼 있다. 건국역사부터 현대전쟁사까지의 기념 동상과 추모탑이 즐비하다. 링컨기념관 정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전몰장병 비각 앞에는 곳곳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어우러져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원 속에 점점이 박혀있는 추모비와 기념관들을 섭렵하면 미국 근현대사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이곳 역사공원에는 각종 국가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단체여행객들이 많았다. 미 해병의장대의 능률한 행진을 지켜보던 노병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의장대장 켈시(Kelsey) 대위는 행사가 끝난 후, 술한 기념사진 촬영요구에도 망설임 없이 함께한다. 또한, 참전용사의 손을 맞잡으며 선배 장병의 헌신에 감사하는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의 참전군인 동상(왼쪽)과 참전용사와 대화 중인 미 해병의장대장 켈시 대위(오른쪽)

## 항공우주박물관(Air and Space Museum)과 과학발전 역사

워싱턴기념비를 지나 한참 걸어가면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설립한 항공우주박물관, 미국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인디언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이 있다. 역사공원 끄트머리에 있는 웅장한 항공우주박물관 안의 전시실은 크게 항공기 발전사/우주탐사와 왕복 우주선/천체과학 분야로 나뉜다. 인류 최초의 동력 엔진 항공기 개발사가 사진과 기록물로 보여준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 해안에서 '라이트 플라이어(Wright Flyer)' 1호기에 엔진을 부착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인류 역사 최초로 284m의 거리를 59초 동안 날았다. 그 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 마침내 3호기는 무려 38km를 38분 동안 비행하는 쾌거를 이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하자 모든 국가는 사력을 다해 군용기 개발에 경주(傾注)했다. 적 후방도시 상공까지 날아가 폭탄을 퍼붓는 폭격기 출현으로 전쟁 패러다임조차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1919년에는 영국군 장교 존 앨콕(John Alcock)은 미국 뉴펀들랜드에서 아일랜드까지 약 3,000km 거리를 무착륙으로 비행했다.



항공우주박물관의 항공기 전시장 전경

## 우주 개척역사와 미국의 우주군 창설

미국 과학역사의 총집결체가 우주개발 분야다. 항공기전시실을 지나면 우주탐사 역사실이 나온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R-7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우주탐사 경쟁의 신호탄이 됐다. 만약 소련이 이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한다면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해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익스플로러 1호 발사가 뒤따랐고, 세계 강국들은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드디어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3명의 미국 우주인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면서 우주개발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전시실에는 아폴로 11호의 선체모형과 운반해 온 달의 암석까지 있다. 관람객들은 독특한 우주복과 달 암석을 보면서 과학 문명의 끝없는 발전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재잘거리는 어린아이들은 우주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찰하면서 우주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있었다. 2019년 12월, 전장 영역을 우주까지 포함한 미국은 8,400명 규모의 우주군까지 창설했다. 우주감시·전략방어·합동작전지원의 임무를 가진 우주군은 계속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주탐사 우주인 복장전시물과 어린이 관람객



아폴로 11호 우주인 탑승 선체모형

## 미국 역사박물관의 과학 문명 발전사

미국 역사박물관은 250년 건국역사와 과학 문명 발전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부에서 서부 태평양을 향해 끊임 없이 나아간 개척정신과 과학탐구역사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독립전쟁, 인디언 분쟁, 남북전쟁, 스페인-멕시코전쟁 등 북미대륙에서는 충성이 멈출 날이 없었다. 하지만 과학기술력으로 포장마차길은 대륙횡단 철로로 변했고, 항공기 출현으로 하늘길까지 열렸다. 박물관에는 에디슨의 전구와 축음기부터 무하마드 알리 권투 글러브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생활용품들도 많았다.

전시실 한편에는 한국전쟁 비극의 역사도 언급돼 있다. 1950년대 이후 20여만 명 이상의 한국 아가들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그러나 과거 미국 도움을 받았던 국가 중 오늘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워싱턴 미국 역사박물관 청사 전경



미국 역사박물관의 한국인 입양아와 해설문



미국 역사박물관 전시실의 한국전쟁 피난민



###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 내 옆의 공군인

제55화

하늘과 바다,  
낭만을 담아내는 예술가  
이진용 소령



필승! 강릉기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교육 입문과정 교관조종사로 복무하는 이진용 소령(공사 60기, 조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낭만!'이란 좌우명 아래 언제 어디서든 낭만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과 여행의 기록을 담고자 붓과 펜을 들기 시작했고, 제 시선으로 하늘과 바다를 담아냅니다. 제가 처음 지은 작가명은 '샤를'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동화책에서 주변의 조롱이나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이뤄내는 주인공이었는데 이야기가 와닿아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작명하고 보니 조금 낮간지러워서 주변에서는 어릴 때부터 불리던 '진드래곤(진용)'으로 불러줍니다.



이진용 소령이 그린 강릉 하늘과 바다

## 영감의 원천 '하늘과 바다, 사랑'

매일 비행하며 마주하는 '하늘과 바다'는 저의 일터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바다 위에서 비행하던 중 위험천만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무사히 지나고 나니 그 순간의 하늘과 바다, 수평선이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후 매일 마주하는 바다와 하늘은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았고, 그 차이를 느끼며 캔버스에 담아내는 행위는 저에게 비행에 대한 낭만과 자연, 예술에 대한 따스한 시선, 나아가 일상의 위안을 선사합니다. 바다와 하늘의 빛과 색에서 끝없는 영감을 받을 수 있었고, 매번 다른 모습이기에 평생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바다와 하늘이 제 일터이기도 했기에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제 그림과 삶에 궁극적인 영감의 원천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는 바다와 하늘을 결국 제 삶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릉기지에서 근무 당시 강릉 하늘과 바다를 그리는 이진용 소령(왼쪽)과 이진용 소령이 그린 작품 일부 모음(오른쪽)

## 그림 그리는 자아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멀티 페르소나’<sup>1)</sup> 또는 ‘부캐’<sup>2)</sup>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자기복합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아가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봤던 당시 저는 비행교육훈련을 마치고 갓 비행대대에 전입했을 때라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아가 가장 컸습니다. 비행을 준비하고 근무를 서는 하루하루에 보람을 느꼈지만, 비행이 잘 안 되는 날이나 조종사 자아에 상처를 받는 날에는 그 여파가 제 나머지 자아를 넘어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힘들거나 우울한 날엔 힘들어진 자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둘러싸인 베란다 화실 공간에서 그림 그리는 자아를 마주하려 했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저의 또 다른 자아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다양한 자아들이 생겨났지만, 그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자아’는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내 주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할 것 같습니다.



이진용 소령이 거주하는 공군사관학교 관사의 베란다 화실

## 서양화반 생도에서 지도장교로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건 생도 시절 사진반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연히 서양화반에 들어가게 됐을 때입니다. 돌아켜보면 그곳에서 만난 강사님이 제 그림 인생의 스승이신 것 같습니다. 당시 힘든 생도 생활을 잘 이해하셨던 강사님께서서는 첫 수업시간에 형식적인 기초수업 대신 캔버스에 제가 원하는 색 하나만 채워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별생각 없이 물감을 짜며 느꼈던 강렬한 희열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모교에 돌아와 서양화 지도장교에 지원했으나 아직 생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진 못했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기회가 된다면 서양화반 지도장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다수라는 뜻의 멀티와 페르소나(고대 그리스 연극배우의 가면에서 유래돼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명명되는 ‘-로서의 나’를 지칭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빠르게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다른 자아를 표출하는 것

2) 부캐: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본래의 캐릭터(본캐) 외의 캐릭터를 이르는 말

## 주변인들의 반응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게 된 일부가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거나 “군 생활에 의지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와 깊은 교류가 없는 관계 인데도 무턱대고 그림을 그려달라거나 선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난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기해하고 존중해주는 반응이 많아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비행이라는 본업이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기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본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림 부탁도 ‘내 그림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구나’ 싶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그림 선물의 의미와 기억에 남는 일화

제게 바다와 하늘, 예술이란 흐르는 일상을 멈추고 영혼과 나누는 소통이자 위안입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저의 영혼과 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그림을 선물한다는 것은 제 영혼의 조각을 나눠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물하는 그림이 그들에겐 언젠가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강릉에서도 종종 그림 선물을 했지만, 공군사관학교로 전속 올 때는 제 그림 대부분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왔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강릉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부부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후



친하게 지내다 전출 가는 후배 부부에게 그림을 선물한 이진용 소령

배 부부가 전출 가게 돼 함께 소풍 가던 강릉 바다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이후에 후배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처음 보는 바다가 제 그림이라며, 아직 거실에 그림을 걸어두고 그 시절을 생생히 추억하고 있다는 인사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제 그림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그림에도 모두가 다른 반응을 보였고,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도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각각의 반응에는 저마다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덕에 그림이 소통의 도구이자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관심 가던 분야가 미술심리상담이었는데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이 배움으로 제 주변인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진용 소령이 2018년 취득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 전시회 개최와 도전

전시회는 총 5번 열었습니다. 저는 평소 “모든 표현은 자신을 스스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전시회로 작품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확고한 기준이 생겼고, 저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조금씩 발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이 기관조종사로서 학생들에게 비행에 관한 교육을 할 때나 다양한 일들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시회에서 작품 「비상(飛上)」을 소개하는 이진용 소령(왼쪽)과 2021년 2번째 개인전 '나의 바다 너의 하늘'에서 제작·판매한 미니 캔버스 그림 사진, 판매 기금 200만 원을 아프리카 도서관 짓기 캠페인에 기부했다.(오른쪽)

###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2014년 강릉기지에 발령받았을 때 하슬라아트월드 미술관에서 했던 첫 전시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시회 공모가 있었는데 제 그림을 미술관에 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라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 내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당시 미술관 관장님의 방문을 두드리고 찾아뵈는데

흔쾌히 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순탄하게 승낙받은 게 의아해 질문했고, 돌아온 답은 제 인생에 큰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 덕에 지금도 그림 전시 외에도 각종 공모전이나 학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문을 두드리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5회 공군 해커톤 자유·지정 공모'에 참여해 대상(참모총장상)을 받은 이진용 소령과 팀원들

“관장님 저 같은 비전문가들도 이런 멋진 미술관에 전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잖아요?(웃음)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법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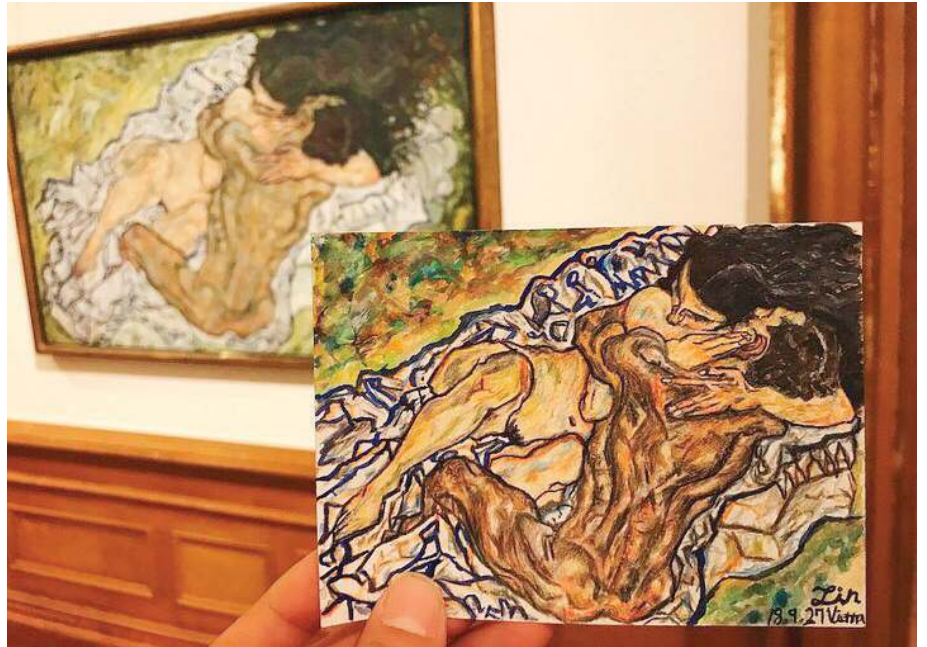


## 좋은 그림이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의 조건은 ‘나를 멈춰 서게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어도 그림을 보기 전과 후의 내 삶, 즉 감정·생각·행동에 일말의 변화를 선사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을 다니며 세계의 다양한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연히 마주한 에곤 실레(Egon Schiele)의 「포옹(The Embrace)」입니다. 이 그림을 3일 내내 방문해 들여다보았는데, 볼 때마다 에곤 실레의 비극적인 인생과 사랑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느껴 이 그림 앞에 앉아 엽서에 똑같이 그려 보며 이 그림을 만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의미는 나로 향해 있다.”라는 말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그림이 어느 순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그림은 그 사람에겐 의미 있고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그리고 싶은 하늘과 바다가 너무나 많기에 꾸준히 그림을 그려 언젠가 사람들이 멈춰서서 들여다 볼 그런 걸작을 남기고 싶습니다.



2019년 가을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궁전 에곤 실레 전시관에서의 「포옹(The Embrace)」과 3일간 그린 모작 엽서

아침저녁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공군’과 ‘조종사’란 지금의 저와 제 그림을 있게 해준 인생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사회의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공군이라는 멋진 직장에서 비행하는 조종사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조종사로 하늘에서 비행하고, 지금은 그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고 그 시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공군은 2023년 1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군 공중사격대회’는 최고의 공중전투 기량을 갖춘 조종사와 비행대대를 선정하는 대회로, 올해는 정찰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2023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기념 단체 사진



우수신인상을 받은 조종사들과 장승준 매일경제 부회장의 기념 촬영



## 대위

김우영(공사 66기)

- 소속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 기종 F-15K
- 비행 625시간

Think Different

## 2023년 탑건(Top Gun) 김우영 대위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김우영 대위(공사 66기)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으로 '2023년 탑건(Top Gun)'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1~2주, 오산기지와 충청 지역에 위치한 미사일감시부대 및 방어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요원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최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으며, 앞으로도 7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이나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같은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여건 확인 및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 국방로봇학회 학술대회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12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방로봇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로봇 분야 및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을 비롯한 우리 군도 ‘국방혁신 4.0’을 바탕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방로봇학회 학술대회가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최신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군-서울시 AI 신기술 분야 업무 협약서 체결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30일(목),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일행을 접견하고, 「공군-서울시 AI 신기술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군과 서울시는 ‘AI 서울 허브’ 내 ‘공군 신기술융합센터’를 설치,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관련 공군의 운항 관제 및 안전관리 노하우 제공 등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사령부

### 공군 가족사랑 음악회

교육사령부는 12월 7일(목), 성웅(聖雄)이순신관에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부대창설 50주년 기념 '서경방송과 함께하는 공군 가족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공군 군악대의 군악연주 및 성악/국악 협연, 걸그룹 파스텔걸스, 가수 알리의 특별출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감동적인 송년의 밤을 만들었다.



## 제1전투비행단

### 활주로 폐쇄 시 처리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12월 13일(수),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활주로 폐쇄 시 지상구조반 출동태세 점검 및 신속 정확한 상황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활주로 폐쇄 시 처리훈련을 했다. 지상구조반은 소방대기조, 기체반, 대기조, 구급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제5공중기동비행단

###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28일(화), 美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여했다. 美 공군은 1952년부터 매년 12월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 주민들에게 생필품 등을 공수해 왔다. 우리 공군은 美 공군의 초청으로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 제15특수임무비행단

### '23-2차 전투태세훈련(ORE)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7일(목)까지 나흘간 '23-2차 전투태세훈련(ORE,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시행했다. 실전에 가까운 다양한 상황을 부여해 진행됐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 제16전투비행단

### 공군·산림청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제16전투비행단은 12월 15일(금),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열어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소재 26세대에 난방용 땔감 80t을 전달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버려지는 나무를 수집해 독거노인, 소년가장 세대 등에 땔감을 지원하는 행사로, 제16전투비행단 공병대대와 남부지방산림청 등 총 7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 제20전투비행단

### '23-4차 사랑의 헌혈운동

제20전투비행단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4일(목)까지 나흘간 희망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대한 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행했다. 20전비는 헌혈 기간 4대의 헌혈 버스를 순회시켜 장병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 소금: 백색의 권력자



**노고은 요리연구가**

요리연구가이자 대한민국조리기능장으로 '세상의 모든 레시피'와 '한국외식관광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 것을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소금이 인류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언어로 알 수 있다. 영어 단어 salt(소금)는 라틴어 sal(소금)에 기원을 둔다. 소금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단어는 '군인(soldier)'이다. 소금이 돈의 역할을 하던 시기 소금으로 급여를 받은 병사를 뜻한다. 월급을 뜻하는 salary와 채소에 소금을 쳐서 먹던 샐러드(salad), 소스(sauce) 역시 소금에서 유래된 단어다. 우리 몸엔 150g의 소금(NaCl)이 있다. 신경전달과 근육운동을 위한 전기자극 신호에 소금에서 해리된 이온(Na<sup>+</sup>)과 소화액인 염산(HCl)을 만드는데 소금은 필수다. 소금을 매개로 세계 무역·전쟁과 도시의 성장·산업의 발달이 이뤄졌으며, 소금이 도시 이름이 되기도 했다. 모차르트의 출생지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는 '소금의 도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소금을 얻지만, 전 세계 소금의 60%는 암염의 형태로 채취된다. 철기시대부터 유럽인들은 암염을 캐기 위해 소금 광산 주변에 정착했고, 마을과 도시가 생기면서 소금으로 부를 축적했다. 수 세기 동안 향료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는 석호\*에서 추출한 소금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켰다. 중세 시대의 베네치아는 소금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주변 국가가 위협하자 전쟁을 벌여 독점권을 유지했다. 미라를 만드는 데도 소금은 필요했고, 이집트인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교역했다. 로마인들은 '소금 길'이란 뜻의 비아 살라리아(Via Salaria)란 도로를 건설해 해변에서 로마로 소금을 수송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소금 길로 로마는 번성했다. 한니بال의 카르타고가 로마와 전쟁한 이유도 시칠리아의 염전을 차지해 지중해 패권을 쥐기 위함이다.

\* 석호(潟湖, Lagoon):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에 의한 퇴적 지형(사주, 사취 등)의 발달로 바다와 분리된 호수, 바다와 이어지거나 지하로 해수가 섞여들어 염분농도가 높다.




로마는 성경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방을 600년이나 통치했다. 그때도 지금도 사막인 곳을 왜 풍요로운 곳이라 했을까? 답은 소금에 있다. 가나안 지방의 사해는 소금호수로, 당시 최고급 소금의 생산지였다.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염화마그네슘과 염화칼슘이 함유돼있다. 이 둘은 쓴맛을 내고 수분을 흡수해 소금의 질을 낮게 만든다. 반면 소금호수에서 나는 소금은 염화마그네슘과 염화칼슘이 적어 고품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나안 지방은 소금으로 인해 사람과 물자가 흐르는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됐다.

소금은 과세대상으로도 적합했다.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이라 대체할 수 없고, 한 번에 대량생산되므로 몰래 만들기 어려웠다. 또, 큰 부피에 숨기기가 힘들어 쉽게 규제할 수 있었다. 중국 당나라 때는 거둬들이는 세금의 절반이 소금에서 나왔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까지도 중국은 정부가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역사적으로 소금을 쥐고 있는 자가 중국의 주인이 됐다.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는 이름의 소금 세금인 염세를 징수했는데, 심할 때는 원가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가벨로 책정됐다. 역사학자들은 가벨을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소금이 가진 상징적인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간디의 ‘소금행진’일 것이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는 영국이 부과한 염세에 반대했고, 염세는 인도에서 식민통치의 상징이 됐다. 간디는 염세에 저항하고자 1930년에 아라비아의 해변인 단디까지 384km를 걸어 소금을 구하려 했다. 소금행진으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으며 이로써 인도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다.

소금은 식자재의 보관에도 필요하다. 소금 덕분에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어선들은 먼 바다까지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생선보유국과 소금보유국(남유럽) 사이에 동맹과 무역 조직이 만들어졌다. 영국은 포르투갈과 동맹을 맺었고, 유럽 북부의 나라들은 ‘한자 동맹’이란 독일의 무역 조직에서 소금을 샀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던 소금을 지금은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냉장고의 발달로 저장(보존제)의 역할이 적어지며 수요가 줄었고, 생산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저염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덜 먹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적당한 간은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데 필요하다.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툭툭 뿌리면서, 이 작은 알갱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동서양 그랜드투어

#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를 담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



**소나영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

어린 시절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꿈을 잊고 지낼 무렵, 미술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2016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으로 '작가탐방' 코너에 매달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전시기획자와 미술 비평가로도 활동 중이다.

똑같은 그림을 평생 반복해서 그린 화가가 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성당, 건초터미, 수련 등 주로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그리는 '연작'에 몰두했다. 심지어 같은 구도에서 여러 번 그렸다는 것을 알면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의 수작이라고 꼽히는 수련 연작은 수십 년에 걸쳐 250여 점이 그려졌을 정도다. 그가 똑같은 대상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수련 연작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19세기 말, 모네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대는 사실주의 화풍이 주목받던 시대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이 서서히 생기던 시기기도 했다. 특히 다게레오타이프<sup>1)</sup> 촬영술 발명(1839년) 이후 카메라의 발명은 미술의 흐름을 뒤바꾸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굳건하게 지켜온 세계의 '모방적 재현'이라는 목표가 카메라 발명 이후 깨지게 된 것이다. 대상을 똑같이 재현했던 화가의 눈은 이제 카메라가 대신하게 되고, 모네와 같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 화가들이 생겨났다. 다른 작가들이 작업실에서만 그림을 그린 것에 반해 모네는 작업실 밖으로 나가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튜브물감의 발명(1841년)이다. 그의 「인상, 해돋이」는 실제 해돋이를 보며 빠르게 그린 그림이다. 붓질의 흔적 없이 매끈하게 그린 당시의 그림들과는 다르게 풍경이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은 채 과감한 붓질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 다게레오타이프(Daguerreotype): 루이 다게레에 의해 1839년에 소개돼 1869년대까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된 최초의 사진술

당시 빛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자들은 물체가 고유한 색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돼 색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네는 평생에 걸쳐 ‘빛’을 탐구하고 야외로 나가 빛에 따라서 미묘하게 변화하는 색채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모네의 유명한 그림은 많지만, 그중 그가 가장 정성을 쏟으며 많이 그린 그림은 수련 연작이다. 수련은 연꽃과 다른 꽃으로, 낮엔 활짝 피고 저녁엔 오므려 ‘잠자는 꽃’으로 불린다. 수련의 ‘수’가 ‘水(물 수)’가 아니라 ‘睡(잠잘 수)’라는 점도 흥미롭다.

모네는 1883년 파리 근교 지베르니로 거처를 옮기고 정원을 꾸미는 일에 몰두했다. 집 앞에 연못을 만들어 수련을 심고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해 화폭에 옮겨냈다. 그에게 있어 정원의 연못과 수련이야말로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소재였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은 수련이 아니라 수련 위로 시시때때로 변화하며 반사되는 빛의 효과였다. 모네는 계절, 날씨, 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는 수련의 모습을 각기 다른 효과로 표현하기 위해 큰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물의 표면 위로 비친 그림자와 빛의 반사, 그리고 그 아래로 물의 깊이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수련 연작은 그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실험과 열정을 보여준 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내의 죽음과 시력 상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등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시련이 닥쳐왔다. 첫 번째 아내 카미유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후 지베르니에 정착해 지내던 중 두 번째 아내도 죽는다.

모네는 시력도 잃어갔다. 빛의 변화를 담기 위해 다음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림 그리기를 반복하며, 반사되는 빛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탓이다. 백내장에 청시증, 황시증<sup>2)</sup>까지 앓다가 결국 왼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가 시력을 잃고 나서 그린 말년 작품을 보면 점차 어두워지며 형태가 추상화처럼 보인다.

모네는 같은 대상을 여러 번 그리는 ‘연작’이란 작업방식으로 사물이나 풍경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생을 탐구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그린다.”라 말한 그의 말처럼 그의 그림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며,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1\]](#)



클로드 모네, Les Nymphéas : Reflets verts(수련 : 초록 그림자), 1914~1926, Oil on Canvas, 200×850cm  
© Musée de l'Orangerie, dist. RMN-Grand Palais / Patrice Schmidt

2) 청시증(靑視症)/황시증(黃視症): 빛깔이 없는 곳에서 빛깔을 느끼거나, 본래의 빛깔이 변색해서 보이는 것을 색시증(色視症)이라 하는데, 그중 모든 사물이 파랗게/노랗게 보이는 증상을 일컫는 말

한 달, 한 권

# 이토록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정효숙 도서전문블로거**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꾸준히 올린 기록이 쌓여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랑이씨)가 되고, 2023년 10월에는 도서 부문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었다. 책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한 달, 한 권>의 홀수 달을 맡게 된 도서 인플루언서 랑이씨입니다. 저는 블로그에 책 리뷰를 올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독서를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어느새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2023년 10월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돼 얼떨떨했습니다. 그 계기로 공군 장병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블로그가 아닌 곳에 글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만, 새로운 독자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아마 그게 독서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독자 여러분을 ‘독서 초보’로 생각하고, 쉽고 재미있는 코너로 진행해 보려 해요. 너무 어려운 책은 빼려고요. 하하. 친구가 책을 소개해 주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나다 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책은 김혼비 작가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입니다. 김혼비 작가는 『아무튼, 술』, 『전국축제자랑』, 『다정소감』 등을 쓴 에세이 작가예요. 스스로는 “여전히 백지 앞에서 낫을 많이 가린다.”라고 말하지만, 김혼비 작가 특유의 B급 유머가 담긴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접속사, 부사, 형용사, 문장부호, 비유, 말장난을 가득 쓰는 유머’라고나 할까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제목에서 보듯 여자가 축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무슨 축구?’라는 편견을 확! 깨주고, ‘나도 축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에세이지요.

책에는 여자 축구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와 보세요, 일단”

수화기 너머의 남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감독님 이라고 부르게 될 이 사람은 자꾸 일단 와 보면 된다고 했다.

우연히 찾은 여자 축구 회원 모집 공고. 마침 마감일이 하루 남아 전화를 합니다. 2주 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벌어놓으려고 했는데, 웬걸? 당장 5일 후 훈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은경 씨한테 시합용 조끼 받아서 은경 씨 위치로 가시면 돼요!”

네? 시합이요? 이제 입단한 지 1시간 10분 지났는데? 인사이드킥 빼고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축구를 손으로 공을 던져 골대 맞추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찌려고 그래요?

대망의 첫 연습 날. ‘팀원 15’로 슬쩍 끼어들게 된 작가는 팀원들이 연습 경기를 펼 동안 처음으로 인사이드킥을 배워요. 그런데 갑자기 첫 경기에 출전합니다. ‘6번 할아버지’ 마크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요.

6번 할아버지의 역정은 지리적 읍소 → 다른 동료 물귀신 작전 → 무시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순으로 변주되다가, 이도 저도 먹히지 않으니까 “넌 이따구로 축구하다가는 조만간 다리 한 짝이 분질러질 것이다.”라는 저주로 바뀌었다. (...)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한 파릇파릇한 신입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부상당하라는 저주라니 이걸 좀 너무하잖아요!

축구 세계의 터프한 룰을 익히게 된 작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데까지 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축구를 계속하기로 해요. 그 외에도 축구 동호회원들의 개성 넘치는 성격과 일화, 좌충우돌 연습 이

야기, 팀 내의 불화, 첫 골의 순간, 여자 축구 리그와 여자 축구의 즐거움이 나오는 정말 ‘축구의, 축구에 의한, 축구를 위한’ 축구 덕후의 책이에요.

책을 읽는 내내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다 기보다는 사석에서 축구에 진심인 사람에게 축구의 매력을 듣는 잡담 같은 글이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니 부럽기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요. 축구나 팀 스포츠를 안 해 봤던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열망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랍니다.

저도 처음 책을 읽을 때 에세이로 시작했어요. 작가의 사적인 이야기가 가득 담긴 글이다 보니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완독 확률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 첫 번째 책은 재미있다고 호평이 자자한 작가님의 에세이를 소개해봤습니다. 혹시 잘 안 맞는 책이 있다면 읽는 도중에 빠르게 덮어버리셔도 됩니다. 대신 다른 에세이 중에서 제목이 끌리거나, 궁금했던 사람이 쓴 책이 있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있거나, 그냥 표지가 예뻐서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나와 잘 맞는 책을 발견하신다면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으로 준비해 올게요. 그때까지 새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현서 지음 | 민영서, 피넬

영화로운 나날

# 「나폴레옹」 영웅과 인간 사이



정송희 영화전문블로거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열렬하게 좋아한 끝에 부산대학교방송국의 PD를 거쳐 부산 KBS-FM에서 작가를 했고, 대종상영화제에서 예산심사를 맡았었다. 지금은 '송이동이'라는 필명으로 영화 평론을 쓰는 네이버 영화전문블로거·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 휘몰아치는 역사 흐름 속 개인의 삶을 그려내는데 탁월한 리들리 스콧 감독과 인물 해석이 뛰어난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영화 「나폴레옹」에서 신념이 뚜렷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영화 관전 포인트다.

영화는 먼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단두대 처형장면에 이어 피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는 동안 피폐해진 프랑스의 국운을 젊은 장교 나폴레옹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여준다. 나폴레옹은 툴롱 공성전을 통해 기회가 왔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승리하는 모습을 프랑스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다. 또,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한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끝에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운명의 여인 '조세핀 드 보아네르'다.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원정을 하는 동안 세상을 향해선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치고, 시간이 가면 조세핀을 향해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나폴레옹과 달리 남편에게 큰 애정이 없었던 조세핀은 젊은 장교와 부정을 저지르다가 신문에까지 실린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폴레옹이 이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니 세상을 휘어잡는 전쟁이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이든 기회와 용기가 무척 중요한데 나폴레옹은 세상을 휘어잡는 군인으로는 호기롭게 성공했는지 몰라도 사랑에는 무척이나 서툴렀다고 볼 수 있겠다.

코르시카섬 출신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에 성공함으로써 국민의 인기를 얻고 전권을 장악해 종신통령에 오른 데 이어 황제대관식을 거행하며 교황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관을 쓰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시대 역행의 순간을 맞이한다.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에게 일부러 프랑스군을 드러내 깊숙하게 전진해오게끔 유인한다. 언덕 위에 숨어있던 프랑스군은 함정에 빠진 적을 향해 공격을 가해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뜨려 연합군을 수장(水葬)하는 작전을 세우고 성공시킴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한다.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영국을 향한 대륙봉쇄령과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몰락의 길을 걷는다. 퇴위 후 엘바섬으로 유배 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해 100일 천하를 누렸지만,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라나 섬으로 유배 간다. 나폴레옹이 유배 간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날 때 조국 프랑스와 함께 “조세핀…”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영화 「나폴레옹」은 두 개의 시선으로 나폴레옹을 그리고 있다. 하나는 전투를 통해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패기만만한 군인으로서의 나폴레옹을 보여주고, 또 다른 시선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조세핀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 부족하고 사랑 표현에 서툰 인간, 남자 나폴레옹을 그리는 데 치중한다. 카리스마 눈빛을 보내며 전략가로서 거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지만, 뒤에서는 음식을 던져가며 부부싸움을 하는 웅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실소가 나올 정도다. 영웅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후세대들에 사랑에 서툰 인간 나폴레옹이 무척 낯설게 다가서지만, 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투장면인 툴롱 공성전,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비롯해 이집트와 실패한 모스크바 원정, 워털루 전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오롯이 역사에 집중해서 몰입을 상승시킨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 정비사업, 법전편찬, 이집트 상형문자 해석 등, 나폴레옹의 상당한 업적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도 158분이라는 상영 시간이 부족하

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가 끝나기 전 전쟁에서 숨진 프랑스군 병사들의 숫자가 나열되며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난다. 나폴레옹이 유럽 일대를 정복한 황제이자 참신한 정책을 펼친 정치가이며 뛰어난 군인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수의 병사, 즉 역사의 핵심 주체인 국민이 희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역사를 모르면 영화 속 많은 장면에 공감할 수 없다는 점과 나폴레옹의 특정 부분만 강조한 점도 아쉽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 특유의 진중한 영상미, 장엄하고도 멋진 음악과 함께하는 황제즉위식과 전투장면, 호아킨 피닉스의 나폴레옹 연기와 바네사 커비가 연기한 조세핀의 매력은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인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현재를 다시 바라보며 미래를 꿈꾼다. 가슴에 세계를 품은 희대(稀代)의 영웅이자 사랑 앞에 한껏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 나폴레옹을 통해서 ‘역사는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힘을 모아 굴러야 하는 거대한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배운다. **IM**



「나폴레옹」

# 책 읽는 공군 감사(感謝)를 감사(監査)하다

상사 김홍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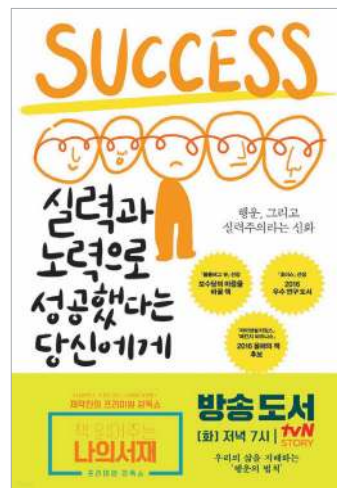
고민 대부분이 책에 담겨 있어 독서를 즐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누고 싶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를 읽기 전과 후, 전 이 문구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인 혹은 자신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별 노력을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거나, 굉장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거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굉장한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것일까요?

책에 나오는 유명인 두 사람의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투자계의 유명한 구루\*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서 쉴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또, 빌 게이츠는 누군가 당신과 비슷한 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십 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구촌을 통틀어 50명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겠지요. 저는 그 시절 어려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누렸는데,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운이 좋은 일련의 사건들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것에 대해 감사(感謝)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된 별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만큼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노력해도 소용없겠네?”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 따라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운이 온다면 감사(感謝)하면 됩니다. 반면 불운이 온다면 행운이 올 때까지 감사(監査)해야 합니다. 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운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행운에 감사(感謝)하는 마음을 감사(監査)한다면 스스로 운에 노출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문베트 H. 프렌크 | 김홍필(리) 펴냄

\* 구루(guru): 힌두교·시크교의 스승이나 지도자, 전문가나 권위자를 이르는 말



# 다하자 버킷리스트

Date . 2023 / 12 / 14

어느새 2023년의 마지막 달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본다.

2023년 한 해는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었지? 난 뭘 했지? 생각하다가 조금씩 작성해온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다. 수많은 버킷리스트 중 올해는 한 가지를 이뤘다. 패러글라이딩하기! 패러글라이딩하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초가을쯤 훈련을 같이 받았던 동기들과 날씨 좋은 날 단양에 놀러 가서 다 같이 패러글라이딩을 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몸으로 바람을 받으니 발밑에 산도 강도 더 예뻐 보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던 게 떠올랐다.



버킷리스트를 보다가 '머리카락 기부하기'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짧은 머리가 편하다며 단발머리를 유지하던 친언니가 기부하겠다고 머리를 길러 기부했다. 그걸 보고 머리카락 기부에 관해 찾아봤다. 해당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기사나 블로그를 보면서 요즘은 염색모나 파마머리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계속 잘라도 자라나는 내 머리카락을 누군가 필요로 한다면 나도 기부할래!' 라는 생각이 들어 버킷리스트로 작성했지만, 그 다짐은 얼마 못 갔다. 스스로가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미루고, 25cm 이상이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르면 단발을 안 해도 되겠지 조금만 더 기르자며 또 미루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었다.



\* 갑자기 오늘 문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운동본부에 회원가입 해 기부 절차를 확인하고, 다니던 미용실을 예약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기부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자르는 게 괜찮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내 머리카락이 누군가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이것저것하고 나니 아직 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부한 것처럼 들뜨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나열하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뤄가고 싶다. 내년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 오늘의 감정



## MEMO

오늘 내리는 눈이 눈이였으면 좋겠다



## 오늘 하루 만족도



## 토닥토닥 우린 아마도 청춘

나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어느 날 문득 엄마가 내게 “나는 이제부터 청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저 긍정적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다. ‘청춘’은 국어사전에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라고 적혀있다.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뭐든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라 생각되어 ‘나는 죽을 때까지 청춘 할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우린 아마도 청춘>이란 노래를 쓸 때, 당시의 나를 돌이켜보면 나조차도 날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도 물음표만 가득했던 날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고민 상담을 하면 “잘될 거야.”라는 결론만 맺고 집에 돌아왔다. 날 위해 건네준 최선의 말인데 전혀 위로가 안 됐다. 이상했다. 내가 꿈꾸던 20대 그리고 지금의 나는 멋져야 하는데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에 한참 우울했었다.



소각소각의 반려묘, “귀여운 낭봉이 보여드려요 :)”

‘청춘이 뭘까?’ 고민하며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토대로 가사를 적어 내려갔다. 막상 정리해보니 속상했던 고민은 어느덧 내게 좋은 감정만 남기고 사라졌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반짝이고, 나도 어떤 모양이든 아름답게 잘 있겠지? 라고.

“누군가는 찬란한 빛 같다 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봄날이라 했던 아름다운 나의 청춘.”

- <우린 아마도 청춘>의 가사 중 -

어떻게 마음먹는가에 따라 우리는 언제라도 더 빛날 수 있는 청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노래의 제목을 <우린 아마도 청춘>이라 지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어른’은 참 무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디서든 넘어졌다가 울고 다시 이겨내는 그런 어른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전보단 제법 나름대로 숙련되어 덜 아파하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청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보려고, 나의 청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래 청춘 영화의 주인공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마지막엔 해피엔딩인 법! 우리의 인생도, 청춘도 해피엔딩이길! [▶](#)



### 가수 소각소각

일기장에 연필로 소각소각 적어낸 누군가의 어떤 하루,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적는 싱어송라이터. 대표곡은 <오늘보다 내일의 너를 더 좋아하겠지, 원래 좋아하면 이렇게 되나 봐>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주고 있다.

# 마음의 소리

## 이서진

zinri\*\*@naver.com

집 근처에 공군부대가 있어 종종 비행을 감상하기 위해 망원경을 챙겨 나가곤 합니다. 임관식이 다가올 때면 블랙이글스의 연습 비행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엔 엄청난 소리에 잠에서 깨곤 하지만, 비행 소리가 전혀 거슬리거나 싫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리기 때문이죠. 공군 파이팅!

## 송나영

rnrwld\*\*@naver.com

12월호 <토닥토닥>으로 예은 양의 근황을 알 수 있었어요. 16년 전 <스타킹>에 출연했던 귀여운 다섯 살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며 출연한 패널들도, 방청객도, 저 역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월간 『공군』을 통해 대학생이 된 예은 양을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예은 양의 앞날을 힘찬 박수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 박향숙

woaik25\*\*@naver.com

<트렌드가 보인다: 인생을 바꿔주는 공간의 힘>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나도 일찍이 조금씩이나마 내 공간을 챙길 줄 알았더라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라는 작가의 삶에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야 한다.”가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AF

블랙이글스 비행은 볼 때마다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멋있습니다. 독자님의 마음의 소리가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AF

저 역시 예은 양이 출연한 <스타킹>을 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피아노학과에 다니며 계속해서 기적을 연주하는 예은 양에게 많은 응원 바랍니다.

### AF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나의 공간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듯 좋은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접수  
방법



####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 공군인의 편지

공백포함 1,250자 내외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ekgald123@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47